

영국의 축산을 돌아보고 (1)

事務局長 朴 信 浩

<영국이란 나라>

지난 3월 3일부터 약 2주간 영국정부의 초청으로 영국의 젖소개량을 돌아보았다.

영국이라고 하면 흔히 잉글랜드(England)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 영국을 정확히 영어로 표시하면 브리튼(Britain) 또는 유나이티드 킹덤(United Kingdom, U.K)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왜그런가 하면 영국은 실지로 4개의 나라로 되어있다. 즉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이다. 언어는 물론 영어를 사용하지만 이들은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민족을 우리는 앵글로-색슨족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지는 단일민족이 아니고 여러민족의 피가 섞인 민족이다. 서기 50여년전부터 수백년간을 로마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앵글로-색슨족이 이주하였으며 그후에 해적인 바이킹, 노르만민족등의 수백년에 달하는 지배등 그 역사는 실로 한마디로 표시할 수 없는 다양한 민족들의 침략, 안주등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른 것이다.

영국의 왕족의 족보를 보더라도 실로 다양한 국가들사이의 왕족들의 결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영어의 발전사나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보아도 이러한것은 잘 나타나 있다.

예를들어서 기르는 소는 캣틀(Cattle)인데 먹는 쇠고기는 비프(Beef)이다. 송아지는 카프(Calf)이고 먹는 것은 빌(Veal)이다. 돼지도 기르는 것은 피그(Pig)이고 먹는 것은 포크(Pork)이다.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은데 이는 불란서 사람들이 영국을 지배할때 기르는 사람은 천하기때문에 영어로 썼고 먹는 사람은 높

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란서말로 표현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먹는쪽의 이름은 대개 불란서말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을 백성, 또는 피그(돼지)라고 불렀고 이는 곧 천한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국에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시작된 산업혁명, 대영제국등의 건설로 영국의 영토에는 해가 질 날이 없었던 영화를 누리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국가를 건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영국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할 지면이나 또 지식의 제한으로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이 정도로 그치고 영국의 농업, 그중에서도 영국의 축산과 젖소개량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자 한다.

<영국의 농업>

영국의 인구는 약 5천6백만명이고 이는 세계에서 15위의 순위가 되는 셈이다. 국토의 면적은 244,100 km²로써 서독과 뉴질랜드의 크기와 비슷하다. 우리나라(남한)의 크기의 약 2.5배가 되는 셈이다.

국토의 이용에 있어서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전국토의 약 4분의 3이 농경지로 사용된다는 것이니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상태인 셈이다. 해양성기후로 우리나라보다 위도상으로는 훨씬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기후는 온화하고 강우량의 적절한 분포로 국토의 이용은 주로 초지농업을 위주로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농업이라고 하면 축산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고 여기에 토질과 기후등의 조건에 맞추어 윤작농업으로 밀, 보리, 과수, 채소, 사탕무 등의 농업이 발전하고 있다. 북쪽의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는 대서양의 난류로 우리가 생각하는 북쪽은 춥고 남쪽은 따뜻하다는 개념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한 일이다.

이 넓은 땅에 농사짓는 인구는 전체 노동인구의 3%에 불과하나 이 인구가 영국인의 전체식량의 3분의 2를 공급하는 영국의 농업을 맡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농업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 1960년대에 식량의 자족율이 50%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70% 가까이 끌어올려놓은 것이다.

여러가지 농축산물의 자급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농산물명		자급율 %
육	류	85
계	란	100
시	유	100
치	즈	71
버	터	64
설	탕	54
	밀	106
감	자	85

〈영국축산의 특징〉

전체농업인구의 약 5분의 3이 낙농, 육용우 및 면양축산에 종사한다. 대부분의 번식용 면양이나 육용우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등 구능지대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보다 경사가 낮은 생산성이 높은 초지는 낙농이나 비육우축산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경작으로 다른 농사를 짓는 지대도 역시 낙농이나 비육우축산이 성행하고 있다.

영국은 본래 여러가지 가축의 품종을 만들어 낸 나라이다. 예를 들면 육용종으로는 헤레포드, 아비딘앵거스, 육용종으로는 저지, 건지, 에어샤, 페지품종으로는 요크샤(라-지 화이트), 바크샤

등이다. 이러한 품종의 정액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 큰몫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또 외국에서도 갖가지 품종들이 도입되어 사육되고 있으며 오히려 그들이 만든 품종보다 더 많이 사육되기 시작하였으며 그중의 대표적인것이 우리가 홀스타인이라고 부르는 후리지안품종이다. 그리하여 영국 낙농은 거의가 이 품종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첫번째 낳는 송아지는 여러가지 육용종과 교잡으로 낳게 하고 또 후리지안의 숫소는 거세하여 비육시키는 것으로 전체 산육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었으니 이 품종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유의 생산과 판매, 인공수정등을 맡아가지고 있는 밀크마켓팅보드(milk marketing Board, M.M.B)의 종모우사육장에는 젖소의 종모우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품종의 육용우 종모우가 사육되고 있으며 최근에 우리나라 한우와 비슷한 털색갈을 가진 리무진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 육용종의 후대검정에는 젖소에다 수태시켰을 경우에 분만은 쉽게 하고 성장율은 빠르며 육질이 좋은가 하는것을 검사할만큼 젖소에서의 고기생산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후리지안이라고 하는 젖소로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홀스타인과는 달리 다리는 좀 짧고 엉덩이 및 다리에는 살이 많이 찢 육용종에 가까운 체형을 하고 있으며 앞의 표에서 보듯이 치즈와 버터가 아직 국내생산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우유안에 들어 있는 단백질과 지방의 생산량이 바로 유대를 지불하는 근거가 되고 따라서 자연히 젖소의 개량목표도 이들의 생산량 증가에 두고 있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젖소의 개량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고저 한다.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는 제2세 국민에게 우유를 많이 먹여주는 일이다.

- 윈스턴 처칠 -